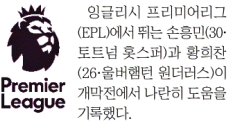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7월(한국 시각)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햄턴과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에서 에릭 디아의 골을 도운 뒤 흥분에 안겨 환호하고 있다.

노련해진 득점왕, 새 시즌엔 '특급 도우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과 활취한(26·울버햄턴 원더러스)이 개막전에서 나란히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7일(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햄턴과 2022-2023시즌 EPL 1라운드에서 1-1로 맞서던 전반 31분 동료 에릭 디아(28)의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시즌 첫 골점프 포인트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16분 상대 모하메드 살리수(23)의 자책골과 후반 18분 데얀 클루세프스키(22)의 페기킴이 더해지면서 4-1 대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슈팅과 패스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했다. 유효슈팅 2회를 포함해 4차례 슈팅을 때렸다. 양팀 통틀어 최다 슈팅 수를 마크했다. 키 패스도 4차례나 기록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지휘했다. 유럽축구 통계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8.2를 부여했다. 1골 1도움을 기록한 클루세프스키(8.6점)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다.

와 EPL 공동 득점왕(23골)에 올랐던 손흥민은 새 시즌 첫 경기부터 골점프 포인트를 기록하며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시즌 4월22순 5부 11패(승점 71)를 기록했던 토트넘은 올 시즌 더욱 강력해진 스쿼드로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33)와 하사클리송(25)의 합류로 팀 공격력은 배가될 전망이다.

장지현(49) SPOTV 축구 해설위원은 "왕백인 페리시치의 노련한 골점프와 하사클리송의 득점 지원으로 기존 손흥민과 해리 케인(29)에게 집중했던 수비수들의 견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손흥민은 지난 시즌처럼 좋은 활약을 이어갈 듯하다"고 내다봤다. 한준희(52) SPOTV 축구 해설위원 역시 "손흥민은 현재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노련한 플레이가 더 가미되고 있어 올 시즌에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 페리시치의 가세 또한 손흥민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희찬은 같은 날 현지 리즈의 엘런드 로드에서 끝난 리즈 유나이티드와 EPL 1라운드 개막전에서 최진범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85분을 소화하며 전반 6분 다니엘 포덴세(27)의 선제골을 돕았다.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나서 5골(1골)을 넣으며 한국인 EPL 데뷔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작성한 그는 2번째 시즌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팀은 1-2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황희찬의 변함없는 활약은 개막전의 큰 수확이다.

황희찬은 같은 날 현지 리즈의 엘런드 로드에서 끝난 리즈 유나이티드와 EPL 1라운드 개막전에서 최진범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85분을 소화하며 전반 6분 다니엘 포덴세(27)의 선제골을 돕았다.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나서 5골(1골)을 넣으며 한국인 EPL 데뷔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작성한 그는 2번째 시즌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팀은 1-2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황희찬의 변함없는 활약은 개막전의 큰 수확이다.

두 얼굴의 수원FC

안방 13경기서 31골 화려한 공격 원정전 12경기 12실점 '실리 축구'



많은 골이 터지는 올 시즌 수원FC의 홈 구장 열기는 뜨겁다. 그러나 원정 경기장에서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 이유는 홈과 원정 경기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 시즌 K리그1(1부)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팀은 수원FC다. 25경기에서 40골을 터트렸다. 경기당 1.6골을 생산해내고 있다. 7일 오전 기준으로 K리그1 팀 득점 1위다. 특히 홈 경기 득점 기록이 인상적이다. 13경기에서 무려 31골을 퍼부었다. 올 시즌 팀 전체 득점의 77.5%가 홈 경기에서 나왔다. 12개 구단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수치다. 홈 경기 득점 2위 울산 현대(20골)보다 11골이나 더 넣었다.

폭발력의 원동력은 좋은 공격진에 있다. 시즌 10골(3도움)을 기록한 이승우(24)를 비롯해 지난 시즌 득점 2위 라스 벨트비크(31·남아프리카공화국)가 팀 득점을 책임졌다. 또한 지난 시즌 도움 2위 무릴로 엔리케(28·브라질)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김현(29) 등 단체전 상대 끝말을 가를 수 있는 수훈급 선수들이 스쿼드에 대기 중이다.

그중 안방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는 이승우다. 인상적인 활약 덕분에 '홈 용우', '캐슬라크(수원종합운동장의 별칭)의 왕' 등의 별명으로도 불릴 정도다.

홈에서 9골 2도움을 쌓았다.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득점 1개, 도움 1개를 제외하고 모든 골점프 포인트를 홈에서 만들었다. 홈 팬들의 응원도 힘입어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 드리블과 2대1 패스 플레이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중거리 슈팅에도 주저함이 없다.

과격력 있는 공격진에 힘입어 수원FC는 공격에 비중을 두고 홈경기에 나선다. 6일 수원 삼성전에서도 4골을 뽑아내며 4-2 승리를 거뒀다.

반면 원정에서 분위기는 정반대다. 공격적인 축구를 앞세워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원FC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 시즌 원정 12경기에서 9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홈에서는 경기당 2.4골을 퍼부었지만, 원정에서는 0.8골에 그쳤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리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보다는 수비를 우선시한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번의 기회를 엿본다. 실점 기록에서도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홈에서는 13경기에서 29실점을 기록하며 공격에 무게를 뒀다. 반면 원정 12경기에서는 12골만을 내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방식 운영을 선택했다.

수원FC는 홈에서 승점 20(6승 2무 5패)를 쌓았다. 올 시즌 얻은 33점(9승 6무 10패) 중 절반 이상을 안방에서 거머쥐었다. 홈에서는 과감하게 원정에서는 신중하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또한 수원FC가 K리그1에서 경쟁하는 방식 중 하나다. 황희찬 기자 ksh@sporbiz.co.kr

오늘의 경기

프로축구 2부 전남-부천(광양정용구장) 경남-안양(창원축구센터야생 19시) K리그2 대구-고창(고창대저(9시·목동구장) 테니스 제3차 한국실업연맹전(영월스포츠타운) 농구 중구달리고 황정왕전 양구대교(10시·양구문화체육회관, 양구청춘체육관) K리그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7시30분·해남 우슬체육공원) 아이스하키 고교 3차리그(12시·목동아이스링크)

1027 회포도 당첨결과 (2022년 08월 06일 수요일)

14 16 27 35 39 45 + 5

오늘의 날씨 WE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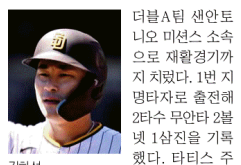
서울 27/28 수평 27/29 춘천 26/28 강릉 27/31 울릉도 27/30 포항 28/35

인천 26/28 청주 26/30 대전 27/31 대구 27/34 창원 26/32 광주 26/30 부산 27/33 울산 27/34 제주 28/35

www.153weather.co.kr

타티스 주니어 복귀하면 김하성 반쪽 전략?

우투수 상대 타율 0.223 부진 감안 MLB닷컴 '플레툰 시스템 가능성'



김하성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가 임박했다. 그는 지난 3월 왼쪽 손목부 다쳐 3개월여 아웃 판정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오르지 못했다. 7일(이하 한국 시각) 구단 산하

타티스 주니어는 시즌 초반 타율 0.223로 부진했다. 좌투수수 상대로는 63경기에서 32안타(2홈런) 15타점 타율 0.302로 좋았다. 좌완 투수수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김하성의 타격감을 살리기 위해 타티스 주니어를 중견수로도 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가 곧 김하성의 반쪽행을 뜻하는 건 아니다. 밤멜빈(61·미국) 샌디에이고 감독은 "타티스가 타티스 오래 버린 만큼 중견수로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일정한 휴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김하성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바로 우투수 공략이다. 해당 문제는 모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활약 중인 최지민(31) 역시 플레툰 시스템에 마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백지 7년 차로 어느덧 중고참 선수로 거듭난 그는 이번 시즌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좌완 공포증'을 극복했다. 최지민은 시즌 초반 우투수수 상대로 13안타 타율 0.382로 맹타를 휘둘렀다. 우투수 상대 타율(0.258)보다 확실히 높아졌다. 특히 전반기 7홈런은 모두 우투수수 상대로 했다. 최지민이 스스로를 구한 것처럼 김하성도 약점으로 꼽히는 우투수 상대 성적력을 올릴여울리던 남은 시즌의 사안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 야생마 뜨거운 질주

푸이그, 최근 한달간 3할 타율 연속 홈런 '이름값'

한국 무대로 건너왔다. 구단은 프리에이전시(F/A)로 풀려난 간판 타자 박병호(36·KT 위즈)를 잡지 않았다. 푸이그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즌 성적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초라했다. 4월 한 달간 25경기에서 출전해 21안타(3홈런) 11타점 타율 0.233으로 머물렀다. 5월에는 더 실망했다. 26경기에서 20안타(3홈런) 15타점 타율 0.204에 그쳤다. 실상 가장으로서 6월엔 허리통증 다치며 13경기 동안 2홈런 타율 0.286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연봉 총액은 상한선인 100만 달러(13억 원)다. 푸이그를 비롯해 올 시즌 KBO리그 무대를 처음 밟은 헨리 라모스(30·포스트로비르), 리오 루이즈(28·미국), 케빈 크론(29·미국), DJ 피터스(27·미국), 마이크 터크먼(34·미국·한화 이글스) 등이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라모스와 루이즈, 크론, 피터스는 부상 및 부진을 이유로 퇴출됐다. 푸이그 역시 퇴출설에 시달려왔다.

한 달간 공백기 때 손맛난 스윙 자세

가 도움이 됐을지. 지난달 7일 잠실 두산 베이스전에서 복귀한 푸이그는 6일 잠실 LG 트윈스전까지 18경기에서 23안타(5홈런) 15타점 타율 0.329로 좋아졌다. 같은 기간 기록을 보면 홈런 부문 공동 3위, OPS(출루율+장타율) 7위(1.13), 장타율 공동 6위(0.600)로 맹활약했다. 특히 4일 고척 SSG 랜더스전부터 6일 LG전에선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은 점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내 유일의 등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키움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00경기를 소화했다. 이제 44경기만 남았다. 7일 오전 기준 팀 타율 9위(0.361)에 그쳐 푸이그의 한 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열한 순위 싸움에 들어가는 후반기에 푸이그가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하고 있다. 간판 타자 이정후(24)에게 집중했던 견제도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날씨 WEATHER

서울 27/28 수평 27/29 춘천 26/28 강릉 27/31 울릉도 27/30 포항 28/35

인천 26/28 청주 26/30 대전 27/31 대구 27/34 창원 26/32 광주 26/30 부산 27/33 울산 27/34 제주 28/35

www.153weather.co.kr

내일 이후 날씨					
지역	9일(화)	10일(수)	지역	9일(화)	10일(수)
서울	26/29	25/30	춘천	25/29	23/30
인천	26/28	25/29	강릉	26/30	24/29
수원	26/29	25/30	대구	27/33	26/31
대전	26/30	25/29	포항	27/33	26/31
광주	26/31	26/30	부산	26/30	26/30
전주	26/31	26/30	제주	27/34	28/34

Smart Economy sporbiz.co.kr 한스경제

대표번호 02)725-6007 이메일 sporbiz@sporbiz.co.kr

구독/광고 02)738-9007 기사제보 02)725-7563 FAX 02)725-9399

발행인 권민진 송진현 총괄부장 김창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길 7 서터벨리빌딩 4층, 구독료 1부 700원 한달 13,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가 50072